

부산일보 데이터센터 기사

23.11.06 일자 (월) 송출

2030 엑스포 유치로 놀라운 부산의 미래 '성큼'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어메이징 부산' 테마로 열린 토론
신공항·신산업 주제 재미레 모색
교육 세션서 혁신 스펙트럼 확장
'엑스포 유치 과정 부산 도약 기대'**

부산이 미래혁신도시로 가는 길을 묻고 실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가득신공항이 바뀐 부산의 미래를 현장에서 그려보고,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부산이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 먹음거리를 진단했다. 올해는 특히 미래를 논하는 화두로 부산 교육까지 토론장으로 끌어들이었다.

〈부산일보〉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동남권 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6일 해운대 시그니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BNK부산은행 방성민 행장, 동아대 이해우 총장, 부경대 장영수 총장, 경남정보대 김대식 총장, 코련스 조용국 회장, 대성문 채철호 회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2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 ▶관련 기사 4·5면

축사에 나선 박형준 시장은 "이번 행사의 테마가 '어메이징 부산'인데 2030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자체가 부산이 어메이징한 도시임을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부산을 점검하고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은 1세션에서는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가득신공항의 개항이 가져다 줄 청사진을 집중조명했다. 여객편만 아

니라 화물처리능력을 높여 부산이 경제공항의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이어 신공항과 신항을 이어 부산이 육해공의 물류를 모두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에코델타시티에 유치되는 데이터센터가 물류에 이어 데이터까지 관장하는 또 하나의 허브라는 위상을 부산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도 쏟아졌다.

2세션에서는 부산이 실제로 스케일업할 수 있는 미래 먹음거리 산업을 두고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이차전지와 수소, 친환경 선박을 전략 산업으로 보고 지식학이 머리를 맞댔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이 '이차전지, 수소, 친환경 선박 기술로 앞서는 첨단산업 도시 부산'을 주제로 나서 새로운 부산의 산업 생태계 구성에 대해 역설했다.

부산의 새 먹음거리를 대표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금양, 수소 분야에선 케이퓨얼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파나시아가 나섰다. 이들은 실제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실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건의했다.

마지막 3세션은 올해 처음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한 부산교육청의 청소년 교육에서 미래를 위한 답을 찾았다. 전국 교육계에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꼽히는 부산시교육청 '아침 체인지' 사업은 컨퍼런스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중상 컨퍼런스에서는 학교 교육이 잘 다루지 않는데 교육 혁신 사례에 1개 세션을 할애해 3회째를 맞은 '스케일업 컨퍼런스'의 스펙트럼이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일보〉김진수 사장은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진 만큼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많은 준비를 한 이번 컨퍼런스가 상전벽해를 앞둔 부산의 미래와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상국·조영미·김준용 기자 ksk@busan.com



미래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할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Amazing Busan'을 캐치프레이즈로 열렸다.

정종희 기자 jph@

가덕신공항과 데이터센터 두 날개로 물류·데이터 허브 도약

세션1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도시

100만 이상 물류 처리할 공항 트라이포트 넘어 신성장 축으로

에코델타시티 데이터센터 구상 모든 데이터는 부산 통해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도입 뎀 금상첨화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를 주제로 6일 열린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제1세션에 키워드는 부산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가덕신공항이었다.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도약에 나갈 물류 산업과 고부가가치를 더할 데이터센터 산업이 부산의 미래 청사진에 밝은 색감을 더했다.

부산시 이석권 경제부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제1세션은 경남 최대의 집대성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공항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과 신라대 김영록 항공운항과 교수, 해양물류에서는 해양수산부 남재현 해양국장과 부산연구원 신현식 원장, 데이터센터 산업에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은희 원장과 이지스자산운용 엑스퍼트그룹 현철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신공항이 완성하는 부산 트라이포트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석권 경제부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동남 경제권의 부흥이 꼭 필요하다”며 “트라이포트를 중심으로 복합 물류 체계를 완성하고 디지털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5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혁신 전략으로 이를 현실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가덕신공항의 조기개항에 앞장 서 온 최인호 의원은 인천의 영종도 발전상을 살펴보면 가덕신공항이 가져올 부산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영종도 주변으로 고부가가치 기업이 밀집했는데 이는 고스란히 인천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토부가 전담하는 가덕신공항 물류처리량은 33만 정도인데 이는 향후 인천공항의 5% 수준”이라면서 “가덕신공항이 경제공장이 되고 부산이 원하는 트라이포트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이상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며 부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 환기를 당부했다.

신라대 김영록 교수는 이제는 조기에 힘을 넣어 가덕신공항의 발전상을 그려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산시가 활주로 길이부터 2단계 확장까지 큰 양보를 하며 국제공항에 걸맞는 하드웨어를 얻었지만 그 안을 채워넣을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공항 트렌드는 쇼빙을 즐기고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가 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혁신도시'를 주제로 한 세션 1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머무는 공간’이라며 ‘공항의 실시간계가 마무리 되기 전에 유휴부지를 활용에 2단계 개발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가덕신공항과 신항만의 연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나섰다. 남재현 해양국장은 “부산시가 신항만에 공항을 보태 거대한 물류 축을 구성하는데 고치지 말고 이 축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상하의 낮은 공급지

대인 푸딩이 월드컵쇼 이후 새로운 도시 속이 났듯 복합도 이를 벤치마킹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류 분야에 대해 부산연구원 신현식 원장은 “부산이 트라이포트를 넘어 트라이아이니세니트를 앞세워 한다”며 “금융과 물류, 신성장 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 발전시켰을 때 부산이 흥풍과 상하이, 런던에 버금가는 국제해안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류 이어 데이터까지 부산이 허브 최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는 데이터센터 유치로 관심이 뜨겁다. 그 열기는 유치를 전담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이승희 팀장이 전했다. 현재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내 17만 평이 넘는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그림을 그린 상태다. 이 팀장은 “이미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6개 기업에서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했고, 센터 구축 과정에서 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신규 창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코델타 데이터센터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투자와 고용 창출이 아니다. 해저케이블이 밀집한 부산과 거제를 연결해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한국에 서비스되는 모든 해외 기업의 트래픽과 데이터 처리는 부산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이 팀장은 “현재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데이터센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나 부산은 하루 빨리 관련 교육·연구개발 센터를 두고 흐름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터센터 사업 전문가인 현철호 대표 역시 “데이터센터가 지금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완전히 대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비는 대부분 토지가 아닌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투입된다. 그 만큼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세션 사회를 맡은 김대식 총장은 “혁신도시 부산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가 이번 세션의 주제였는데 가덕신공항 개항이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등 청년에게 좋은 환경조건을 제공하려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esk@busan.com

부산형 이차전지·수소산업 생태계 구축해 부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세션2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첨단도시

후발주자지만 인력 양성 경쟁 기술 가진 회사끼리 협력해야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주제로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차전지, 수소, 친환경 선박까지 부산의 현재이자 미래 중점 산업을 두고 지식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서용철 원장은 “이차전지, 수소, 친환경 선박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첨단산업도시 부산”을 주제로 기조 연설했다. 서 원장은

“부산은 이차전지 분야 생태계 구축이 시작되는 단계로 지금까지 기계 부품 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화학 부품 소재 분야 산업 발달이 더딘 것이 현실”이라며 “이차전지 후발주자지만 부산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대학 밀집도가 높아 인력 양성이 유리하고 초광역권 이차전지 수요처도 풍부한 만큼 부산형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은 매년 이차전지와 관련된 화학·소재 분야, 전기·전자 분야 2500여 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또 부산·경남 지역에 76개 배터리 연관기업이 집적해 있다. 이 같은 부산의 환경을 잘 활용해 부산에 특화된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소산업의 경우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이제 막 구



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얼 호텔에서 열린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세션2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축 단계인 만큼 부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서 원장은 “동남권에는 6

07개의 수소기업이 있고 전국이 23.8% 상당을 차지하는데 수소수용 활용 생산에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동아대 이해우 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부산 이차전지 분야 대표 기업인 금양 장석영 부회장은 “이차전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장벽을 지난 9월 극복했고 좋은 배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차전지 배터리를 제조하는 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몽골 광산 투자로 빠르게 내년 티스텐과 리튬을 채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에 특화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코렌스 그룹의 수소연료전지 분야 계열사인 케이퓨얼셀 나성욱 대표는 “수소연료전지는 고도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남들이 다 하고 난 뒤 따라가겠다는 전략은

로는 미래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수소 연료, 이차전지 등 부산 내에 실제로 기술을 가진 회사끼리 모델을 만들고 실용을 구축하고 시가 지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 특화된 파나시아의 운영권 대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기관, 학계가 연계해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법을 만들고 시험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우 총장은 “부산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차전지, 수소,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부산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이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조영미 기자 mia3@

아침이 달라졌다, 잠든 학교가 깨어났다

세션 3

부산 미래 교육

매일 아침 20분 수업 전 체육 활동
'아침 체인지' 내년 전국 확산 앞둔
학생 체력·인성·사회성 키우고
학교 인프라 강화로 도시도 활력
예산 확보 통해 사업 범위 넓힐 것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3세션의 주제는 숲에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부산발 학교 아침 혁명 '아침 체인지'였다. 아침 체인지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0분간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전 진행되는 아침 체육 활동이다. 부산에서 처음 시작돼 타 시도에 서도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대표적인 부산발 교육 혁신 사례로 꼽힌다. 교육계의 '핫이슈'인 아침 체인지를 기획하고 운영 중인 부산시교육청 박치욱 장학관이 아침 체인지를 소개하며 부산의 미래를 그렸다.

부산 학교 현장에서 아침 체인지가 시작되고 매일 아침 학교는 시끌벅적해졌고 학생들의 생활엔 생기가 돌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학생들이 축구, 농구부터 요가, 플래시몹까지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학교 생활을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3세션의 주제는 부산발 학교 아침혁명으로 불리는 '아침 체인지'였다. 박치욱 부산시교육청 장학관이 '혁신 정책의 성공화'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부산의 미래를 그렸다.

시작한다. 박 장학관은 "과거 아침 교실은 대부분 학생들이 일드려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아침 체인지를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된 학교가 아닌 신체 부대끼를 통한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고 인성, 사회성을 키우는 학교로 바꾸고자 했

다"고 말했다. "아침을 깨우자"는 파격적인 교육 실험은 학교 현장의 뜨거운 반응으로 돌아왔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을 해 나가기 시작했고 등교를 힘들어하던 학생들도 아침 체인지 시간을 기다리는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초 아침 체인지 정책을 기획했을 때 시교육청은 시내 50개 학교에서 아침 체인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교별로 신청을 받지, 초·중·고 433개 학교에서 아침 체인지를 희망했다. 박 장학관은 "학

교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고 단순히 체육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협동심, 인성을 키우는 시간으로 아침 체인지는 진화하고 있다"며 "교실을 깨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느낀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원장 교사와 학부모도 아침 체인지로 바뀐 학교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사중 유준재 교사는 "학교에서 특기적성반, 자율반, 스포츠리크형반 등 다양한 형태로 아침 체인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운동장이 매일 붐비고 학교에도 생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연서초 박은경 학부모회장은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티볼을 하러 아이가 학교에 가길래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는데 하루하루 아이가 밝아지는 모습으로 아침 체인지의 효과를 체감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 박 장학관은 아침 체인지가 학교만의 일이 아닌 지역 사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침 체인지로 학교 운동 시설 인프라가 강화되고 생활 체육 역량이 커지는 등 부산 전체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스케일업'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학관은 "학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해 학교 시설을 바꾸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교육청,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서도 이 같은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을 필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장학관은 아침 체인지 지역 사회 확대의 일환으로 토론 세션에서 즉석으로 '부산은행 아침 체인지 직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소년 대상 직급 상품 등으로 청소년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다. 박 장학관은 "지역 금융권에서 아침 체인지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우대 금리 등을 적용한 직급 상품을 만든다면 아침 체인지의 지역 상생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시작된 아침 체인지는 내년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광주 시, 충남, 경남, 경북에서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이고 교육부는 아침 체인지를 내년 도 주요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전국으로 아침 체인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교육부는 아침 체인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대거 배정되기도 했다.

아침 체인지를 탄생시킨 하은수 부산시교육감은 아침 체인지 예산 확보의 의미를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로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예산 135억 원과 교육부 지역혁신사업 65억 원 등으로 아침 체인지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학생 활동을 넘어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공감체인지, 아침 체인지 참여 학교가 함께 모이는 아침 체인지 어울림 한마당 등 아침 체인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 새 먹거리 데이터센터 소개에 박수갈채 쏟아져

이모저모

신산업 확장·일자리 창출 기대 신공항 관련 관심 속 10분 터 토론

○...이런 달에도 마나면 파리까지 떠나는 시장남께 박수와 함께 에너지를 전해 드립니다. "2023 부산 스케일업 컨퍼런스" 개막 축사에 나선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축사에 앞서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박영준 부산시장에게 건네며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오는 28일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를 갈 예정이다. 동행한 사절단마다 모두 손사래를 치는 엑스포 유치에 관한 장거리 비행이 어떤

으로 다섯 번째다. 김 시장은 오는 12일 출국하는 박 시장을 위해 "부산시민이 함께 가는 그 길에 부산을 위한 길이요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정도를 축복했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이 핵심적으로 다뤄진 1세션에 특히 참석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1세션 토론 좌장을 맡은 경남정비대 김대식 총장은 토론자들의 발언 시간을 조절하느라 전담을 빼기도 했다. 1세션은 당초 일정보다 10분가량 더 진행됐다. 김 총장은 "가덕신공항, 물류, 데이터센터 주제는 이 주제만으로도 온종일 토론과 토의가 가능하다"며 "세션이 10분 더 진행됨 것은 진행자들이 부족함 때문

이니 너그라이 이해해 달라"며 재치 넘치는 진행을 선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신라대 김영록 교수는 최근 가능성이 열어진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부산 유치의 대안으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모두 통합 LCC를 부산에 옮기는 안에 대한이 소극적"이라며 "가덕신공항을 모함으로 하는 통합 LCC를 부산에 유치하거나 어렵다면 에어부산은 아시아나와 분리해서 새로운 에어부산에 부산 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합병이 성사

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의 모함을 부산으로 옮기거나 에어부산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분리매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미래를 진단하는 이번 행사 내내 플로어에서는 호응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사구 예고편타이머에 조성필 예정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가 대표적이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승희 팀장이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라면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신산업이 확장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진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권상국·조필민·김준용 기자 mia3@



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얼 호텔에서 열린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에서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종희 기자